

HR인트로 www.hrintro.co.kr



인사관리는 우리에게 맡겨라!

서강대학교 도서관 맞은편에 위치한 3층 건물의 창업보육센터에는 1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곳 302호에 위치한 HR인트로(대표 오정균)는 직무분석 솔루션을 대기업과 정부기관 등에 구축한 실력있는 IT솔루션 벤처회사다.

대기업 및 정부기관에 직무분석 시스템 구축

HR인트로는 인사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10여 년 동안 HR 솔루션 비즈니스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창업한 벤처회사다. 2002년 'GLIT'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2006년에 'HR인트로'라는 사명으로 변경했다. 이 회사는 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인사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분석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 동안 현대모비스, NHN,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대기업과 정부기관에 직무분석 시스템(Job Analysis System)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기업에서 직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직무량을 이용해 정원을 산정하는 경영도구다.

오정균 대표는 "기업들이 직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인사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직무분석은 현재의 인력 상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직무에 관한 설문지 항목에 직원들이 입력한 세부 업무를 기반으로 회사 정원을 산정하여 직무별, 부서별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직무 중심의 인사 혁신은 직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오 대표는 "기업들이 사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분석 시스템이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인원수가 천명 이상인 중견기업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직무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분석 솔루션의 타겟은 직접 고객과 간접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코스피에 상장된 1,700여 개 기업과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1차 대상입니다."

직무분석 프로젝트 전문회사로 성장

오 대표는 "현재는 직원 수가 천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관리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지만,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무분석 프로젝트 전문회사로 성장하여 컨설팅과 IT가 함께하는 전문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분석과 관련해 업종별 표준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

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무체제를 구축하여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직무중심의 인사 시스템 보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오 대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IT솔루션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조언도 한 마디 했다. "IT솔루션 사업은 적어도 2년 이상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솔루션이 개발되고 나서 판매를 하려면 자금의 어려움과 함께 영업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를 상당수 봤습니다. 구축사례가 없는 검증되지 않은 솔루션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구입하기를 꺼려합니다."

HR인트로 역시 직무분석 솔루션을 2003년에 개발했지만 실질적인 판매는 2년 뒤에 이뤄졌다. 이밖에 회사명, URL, 로고, 사업계획 등 사업 초기에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것들을 창업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고 제작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운영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창업 초기에는 너무 바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느라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질 않아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움이지요!" HR(인사관리)의 시작(INTRO)과 끝(오메가:Ω)을 의미하는 사명(HR INTRO+Ω)처럼 최고의 HR솔루션 전문 기업을 만들겠다는 오 대표. 그의 꿈과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